

## 잇스매와 함스매의名稱

金 鎮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 A Study on the Names of *is sa mai* (잇스매) and *ham sa mai* (함스매)

Jin 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 目 次

Abstract

I. 緒 論

II. 잇스매 함스매의名稱 語源 意味

III. 結 論

參考文獻

####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names of *is sa mai*(잇스매) and *ham sa mai*(함스매).

Origins and meanings of these terms were traced and examined.

Some significant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Korean word *is sa mai*(잇스매) was a compound word, Korean character *is*(잇) is derived from Chinese character *i*(頰), and *sa mai*(스매) in Korean means sleeves 袖 in Chinese character.

The character *ham* in *Ham sa mai* (함스매) is its origin in Chinese: Korean character *ham* was Korean pronunciation of the Chinese character, *han*(頰). *Ham sa mai* is a compound word of *ham*(함) (Korean), *han*(頰) (Chinese) and *sa mai*(스매) sleeves (Korean).

Thus, first characters of *is*(잇) in *is sa mai*(잇스매) and *ham*(함) in *ham sa mai*(함스매) are originated from Chinese, where as the word *sa mai* in the end of *is sa mai* and *ham sa mai* is pure Korean.

Both character *i*(頰) and *ham*(頰)(*han*, Chinese) in Chinese means a jaw.

Thus, both *is sa mai*(잇스매) and *ham sa mai*(함스매) means "jawed sleeves". That is long and wide round sleeves with narrow wrists.

#### I. 緒 論

朝鮮時代의 문헌에는 服飾에 관련된 기록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어 服飾史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그러나 그러한 귀중한 복

식연구 자료 중에는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服飾관련 用語들이 많이 들어 있어 服飾史 연구에 곤란을 초래하고 또한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本 연구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服飾관련 用語 가운데서 잇스매와 함스매를 택하여 이

것들의 명칭, 어원,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잇스매와 함스매가 무슨 뜻이며 이 명칭들은 어디에 그 근원이 있는지 규명한다는 것은 譯語類解 上 44에 보이는 鶴袖와 호슈란 말의 의미도 규명하는 결과가 되며 앞으로 우리 나라 服飾史 연구뿐만 아니라 中國 服飾史 연구를 위하여서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 뿐 아니라 잊혀져 가고 消失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귀한 文化遺産인 古語의 뜻을 찾아냄으로써 우리나라 古代國語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 연구를 위하여서는 한국과 中國의 문헌과 시각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 II. 잇스매와 함스매의 名稱 語源 意味

잇스매와 함스매란 말은 鶴袖란 말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는 말이다. 譯語類解 上 44에 鶴袖 舊本 호슈 잇스매와 함스매라는 기록이 발견된다. 鶴袖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이 있음에도 그 설명들은 鶴袖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호슈, 잇스매, 함스매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말들은 소매(袖)의 一種이란 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鶴袖란 말이 朝鮮 땅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鶴袖란 말은 中國에도 있었다. 中國에서는 朝鮮時代 보다 더 앞선 時代인 元代에 있었던 말이다.

中國 元代 北方婦女的 衣服名에 鶴袖襖兒가 있었다<sup>1)</sup>.

이 기록에 의거하면 鶴袖란 말은 朝鮮에서 보다 훨씬 전부터 이미 中國인이 사용했었던 服飾 관련 用語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譯語類解에서 보면 鶴袖란 말은 옛날에는 본래 “호슈”라고 했던 것인데 譯語類解가 찬술될 당시에는 그것을 鶴袖라고 했으며 그것을 또한 사용했는데, 한글로는 잇스매, 함스매라고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譯語類解는 肅宗 16年(1690)에 刊行되었으므로 이 말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朝鮮에서 사용되어왔던 것이 확실하다 할 것이

다.

譯語類解에 있는 “호슈”란 말은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호슈”란 말은 순전한 한글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호슈”란 말은 어떤 漢字로 된 말의 한글 표음의 기록이 확실하다. “호슈”의 “슈”字는 袖字의 표음임이 分明하기 때문이다. 訓蒙字會 中 23에 袖 스매슈라고 있다. 그러나 “호슈”에서 “호”字는 무슨 호字를 표음하여 적은 것인지 알 수 없다. 朝鮮 世祖代의 기록에 보이는 好袖도 있고 그 後代의 기록에 보이는 胡袖도 있기 때문에 好袖와 胡袖 中의 어느 한 글자인 호字일 것이지만 好와 胡字 中 어느 글자인지 알 수 없다. 譯語類解에 보이는 “호슈”란 말은 好袖와 胡袖중 어느 하나의 표음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호슈”라고 나타나는 한글 만으로는 好袖와 胡袖중에서 어느 말을 “호슈”라고 기록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스매는 朝鮮語로서 소매란 뜻이다. 스매는 사미 사미라고도 썼는데 그 예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 1. 스매

祛 스매거 (訓蒙字會中 23)

袂 스매 매 (訓蒙字會中 23)

袂 스매 익 (訓蒙字會中 23)

袖 스매 슈 (訓蒙字會中 23)

- 스매에 마뜨기 가져 가느니(携滿袖, 杜詩諺解 6<sup>4)</sup>)
- 불근 스매 거문고에 다티더니라(朱袖拂雲和, 杜詩諺解 10<sup>4)</sup>)
- 스매를 끌어 일로브터 도라가 놋다. 解袂從此旋(杜詩諺解 22<sup>5)</sup>)
- 불근 스매에 울오 紅袖泣(杜詩諺解 23<sup>2)</sup>)
- 시르메는 춤츠논 기르물 트던히 너기노라 愁從舞袖長(杜詩諺解 23<sup>12)</sup>)
- 옷 스매 일즉 마르디 아니호느다 衣袖不曾乾(杜詩諺解 初刊 8<sup>45)</sup>)
- 依依호스매를 끌어 여희다 못호야서 未解依依袖(杜詩諺解 初刊 20<sup>47)</sup>)

1) 沈從文, 中國古代 服飾 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 370.

· 놀이어신 스매길례(樂學軌範, 處容)

## 2. 스리

· 내 향촉 비젯 스리에 통하야 무릅들과 오치 실로 슈질흔 털릭과 我的串香褐 通袖膝襪五彩綉帖裏(朴通事 初刊 上 72)

· 울며 자른 스리 떨티고 가디마소(李明漢, 古時調)

## 3. 사리

· 눈물이 두 사리에 다젯는다(蘆溪集, 莎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스매는 朝鮮語로 스매란 말이므로 잇스매와 함스매란 말은 스매 앞에 “잇”字와 “함”字가 합하여져서 만들어진 合成語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잇”字와 “함”字는 스매란 말을 수식하는 말이며 이 두 글자는 어떤 특별한 스매를 의미하거나 또는 어떤 스매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 글자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잇”字와 “함”字가 순전한 한글인지 아니면 어떤 漢字의 표음을 한글로 적은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따라서 “잇”字와 “함”字의 뜻도 알 수 없다. 잇스매의 “잇”字와 함스매의 “함”字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일 것인지 찾아내야 한다. 그렇다고 “잇”字와 “함”字를 무작정 찾아 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여서도 안된다. 잇스매와 함스매란 말은 同義語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잇스매와 함스매란 말 앞에 각각 붙어 있는 “잇”字와 “함”字는 異音字이지만 앞의 同義語란 前提條件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즉 “이”字와 “함”字는 異音字이면서 同義字여만 한다. 그러면 서로 “잇”字와 “함”字는 스매란 말 앞에 있어 각각 스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스매 모양이나 스매의 특징 또는 스매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수식하는 글자여야만 한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조건을 갖춘 글자를 찾아 보도록 시도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잇스매란 말에서 “잇”字에 대하여 보면 잇의 “스”는 사잇소리 “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語에 사잇소리 “스”의 예를 訓蒙字會에서 몇 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胘 스깃자(上 24)

鞆 칩화(中 22)

跨긔 돈과(中 23)

繼 세뵈도(中 23)

娑 가삿사(中 24)

紗 삿사(中 30)

羅 뇨라(中 30)

寶 보뵈보(中 31)

珊 산훗산(中 32)

瑪 마뵈마(中 32)

琉 류릿류(中 32)

簾 솟쇼(中 32)

그러므로 잇스매는 “이”와 “스매” 사이에 사잇소리 “스”이 있는 말이다. 따라서 잇스매 앞의 잇字는 “이”字를 찾아야 한다.

잇스매와 함스매의 “이”字와 “함”字를 만족시켜주는 異音字이면서 同義字에는 이顚字와 頷字가 있다. 이 두 글자는 둘 다 우리말로 “턱”이라고 訓하는 글자이다.

먼저 顚字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두 글자에 대하여 보면

訓蒙字會 上 25에 顚 獨 이 頷 獨 함 亦作 顚 이라 있다. 獨은 턱이란 朝鮮時代語이다.

「急就篇, 三」類 顚 顚 項 肩 臂 肘. 「注」下 顚 曰 顚. 「漢書, 東方朔傳」擢 顚 頷. 「注」師 古 口, 顚, 頷 下 也.

頷字에 대하여 보면 頷字는 頷, 脣, 頤, 頤字와 同音義字이다. 「方言, 十」에 頷, 頤, 頷 也. 南楚 謂 之 頷, 秦 晉 謂 之 頷, 頤 其 通語 也. 라고 있다. 「釋名, 釋形體」에 頷 舍 也, 口 含 物 之 車 也 라 있다. 여기의 車의 의미는 “口下”란 뜻이다.

頷字는 頤下 頤上 之 部分을 일컫는다. 위의 여러 글자 가운데서 顚字는 頷字나 頷字와 通하는 글자이지만 異音 同義字인 것이다. 顚字는 顎을 말하는데 上下 顎之 總稱이기도 하고 下 顎과 下 頷을 일컫기도 한다.

即 顚字와 頷字는 異音字이지만 同義字이다. 잇스매와 함스매는 스매 앞에 異音字이면서 同義字인 顚字와 頷字가 語頭音 字로 각각 붙어서 이루어진 複合語인 것이다. 즉 잇스매와 함스매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

이(顚) + 스매(袖) = 이스매 → 잇스매

합(頤) + 소매(袖) = 합스매

종이로운 것은 잇스매와 합스매란 말의 구성이다. 소매 앞에 있으면서 소매를 수식하여 주는 頤字와 頤字는 漢字이고 뒤에 있는 소매는 한글인 國語란 것이다. 잇스매와 합스매를 漢字로 바꿔서 적으면 頤袖와 頤袖가 된다.

잇스매와 합스매를 그 뜻에 따라 우리말로 直譯하면 “턱소매”가 된다. 이 말은 모두 소매 모양 때문에 얻어진 이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턱과 같이 소매 모양이 둥글고 불룩한 소매인 것이다. 이런 모양의 소매는 袖口가 좁고 소매통이 넓으며 소매의 배래가 둥글고 아래로 늘어지고 소매 아래가 있어 소매 모양이 턱같이 불거져 나온 소매가 바로 잇(頤)스매이고 합(頤)스매인 것이다.

이로써 잇스매와 합스매의 語源과 意味가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意味인지 알 수 없었던 鶴袖란 말의 意味도 규명 되었다.

鶴袖가 무엇인지는 밝혀졌다.

그러나 鶴袖란 말은 漢字로 이루어져 있고 中國인들이 사용하였던 말을 朝鮮時代의 사람들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鶴袖란 말은 글자 意味대로 鶴소매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어휘를 漢音으로 取音한 말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鶴의 특징이 몸체는 크고 목은 가는 모양이므로 鶴모양과 비슷한 모양의 소매 즉 잇스매(頤袖) 또는 합스매(頤袖)를 中國인들은 鶴袖란 말을 만들어 사용하였을지도 모른다.

中國인이 鶴袖라고 하였던 이 말은 이 말과 同音이거나 類音인 어떤 말의 現實音을 取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그 말의 意味를 취한 것이 아니고 音을 취하여 사용한 말이라고 보인다. 鶴字 音에는 몇 가지 音이 있는데 *heg, hao, ho* 등이 있다. 鶴字 音이 胡字와 그 音이 비슷하므로 胡字 音 *hu, huu, hwu* 와 비슷한 鶴字 音을 표음한 現實音일 것이라 생각된다.

鶴字와 類音이면서 또한 鶴袖와도 類音인 漢語에 貉袖가 있다. 貉袖는 宋代의 衣服名이다. 그러나 宋代의 貉袖는 馬上衣로서 옷소매 길이가 肘를 겨우 가리울 정도의 짧은 소매였고, 옷 길이가 허리를 지나지 않을 정도의 옷이었으므로 이 옷

의 소매는 朝鮮의 鶴袖란 옷 소매와는 다른 옷이다.

옷 소매의 袖口가 좁고 소매통이 넓으며 배래가 둥근 모양의 소매라도 소매 모양이 同一하지 않고 조금씩 차이가 있다. 中國 古代의 深衣 소매 같이 袷을 다른색 천으로 緣을 대어 만든 모양의 소매가 있다. 우리나라 朝鮮時代의 深衣 소매도 袷을 다른 색으로 緣을 대어 만든 소매이다. 그러나 袷은 中國 古代 深衣의 袷에 比하여 많이 좁은 편이다. 卽 소매의 袷가 따로 있는 것과 圓袂인 점은 中國 深衣 소매와 같으나 袖口에 소매와 다른 색 끝동을 대더라도 소매 배래선이 袖口까지 연결되어 끝나는 소매로서 深衣 소매와는 소매 끝 모양이 다른 소매를 생각하여 볼 수도 있다. 이 소매 끝은 우리나라 저고리의 끝동이 달린 소매처럼 끝동은 소매 배래선의 연결선을 끊지 않는 圓袂이다. 또한 圓袂라도 소매의 중간쯤이 제일 넓고 袖口쪽으로 점점 좁아지는 圓袂도 있고 袖口쪽부터 넓은 曲線으로 이루어지는 소매동 같은 圓袂라도 時代에 따라 또는 民族과 流行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양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또한 袖口에 緣을 대지 않은 圓袂도 있다.

### III. 結 論

이상의 논의에서 朝鮮時代에 服飾관련 用語로 사용되었던 잇스매와 합스매의 명칭과 어원, 그리고 그 의미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잇스매와 합스매란 명칭은 이 두 어휘 각각 두 개의 말이 합하여 하나의 낱말을 이룬 모두가 合成語였다. 잇스매란 말은 頤字라고 하는 漢字의 韓音 “이”와 소매라고 하는 朝鮮語가 合하여 이루어진 말이었다. 잇의 “스”은 사잇 “스”이었다. 합스매란 말은 頤字라고 하는 漢字의 韓音 “합”과 소매라고 하는 朝鮮語가 合하여 이루어진 合成語였다.

잇스매와 합스매란 말은 同義語로서 “턱”소매란 意味를 가진 말인 것이 발견되었다. 잇스매와 합스매란 말은 소매모양 또는 소매의 특징 때문에 그 명칭을 얻은 것이란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잇스매와 합스매란 말은 소매의 袖口가 좁고

袂는 廣博하며 袂 部位는 배래가 袖口쪽에서 부터 점점 넓어지다가 겨드랑이 쪽으로 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소매를 일컫는다. 턱 또는 턱 아래 모양같이 소매 배래 쪽이 불거져 나온 소매가 잇스매이고 함스매이다.

잇스매와 함스매란 말은 턱 모양의 소매 또는 턱 아래 모양의 소매란 뜻을 가진 朝鮮語로서 옷소매의 명칭이었다.

### 參考文獻

- 高福男, 韓國傳統服飾研究, 一潮閣, 1986.  
 國朝 五禮儀.  
 國婚定例.  
 同文類解.  
 禮記.  
 尙方定例.  
 樂學軌範.  
 譯語類解.  
 譯語類解 補.  
 五洲衍文長箋散稿.  
 劉頌玉, 朝鮮王朝 宮中儀軌 服飾, 修學社, 1991.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1983.  
 崔景順, 英正祖代 服飾變遷에 관한 研究, 영남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p. 36.  
 度支定例.  
 漢清文鑑.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仁祖五年(1627).  
 仁祖 壯烈后 嘉禮儀禮, 仁祖五年(1627).  
 顯宗 明聖后 嘉禮都監儀軌, 顯宗 十六年(1638).  
 肅宗 仁敬后 嘉禮都監儀軌, 肅宗 十二年(1671).  
 肅宗 仁顯后 嘉禮都監儀軌, 肅宗 七年(1681).  
 景宗 端懿后 嘉禮都監儀軌, 肅宗 二十二年(1696).  
 肅宗 仁元后 嘉禮都監儀軌, 肅宗 二十八年(1702).  
 景宗 宣懿后 嘉禮都監儀軌, 肅宗 四十四年(1718).  
 眞宗 孝純后 嘉禮都監儀軌, 英祖 三年(1727).  
 莊祖 獻敬后 嘉禮都監儀軌, 英祖 二十年(1744).  
 英祖 貞純后 嘉禮都監儀軌, 英祖 三十五年(1759).  
 正祖 孝懿后 嘉禮都監儀軌, 英祖 三十八年(1762).  
 純祖 純元后 嘉禮都監儀軌, 純祖 二年(1802).  
 文祖 神貞后 嘉禮都監儀軌, 純祖 十九年(1819).  
 憲宗 孝顯后 嘉禮都監儀軌, 憲宗 三年(1837).  
 憲宗 孝定后 嘉禮都監儀軌, 憲宗 十年(1844).  
 哲宗 哲仁后 嘉禮都監儀軌, 哲宗 二年(1851).  
 高宗 明成后 嘉禮都監儀軌, 高宗 三年(1866).  
 純宗 純明后 嘉禮都監儀軌, 高宗 十九 (1882).  
 純宗 純明妃 嘉禮都監儀軌, 光武 十年(1906).